

| 이슈페이퍼 2019-02 |

재가 미혼모 가정 실태 파악을 통한 양육지원정책 개선 방안

김지현

1. 배경 및 문제점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3. 재가 양육 미혼모 지원영역별 양육실태분석
 4. 현재 미혼모 지원에 대한 평가 및 요구
 5. 재가 양육 미혼모·부 정책 개선 방안
- 참고문헌

재가 미혼모 가정 실태 파악을 통한 양육지원정책 개선 방안*

김지현 부연구위원

◆◆ 요약 ◆◆

- 입양보다는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재가 양육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및 양육과 취업사이의 갈등, 양육기술의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300명의 미혼모 가정을 대상으로, 미혼모 가족의 양육실태, 자립 및 취업실태, 임신기의 의료시설 방문경험, 비양육 부모에 대한 대화를 비롯한 양육환경의 실태를 파악하였음.
- 응답자의 80% 이상이 정부 지원 및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소득이 있는 가구는 35% 정도에 지나지 않음. 생활비로 인한 부채가 많은 편이었으며, 늦게 병원을 찾은 미혼모 중 43%가 병원비 부족이 원인으로 나타나,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에 재검토가 필요함.
- 또한 정부지원 혜택 중 아이돌보미, 미혼모 초기지원 등에 대해 기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이용혜택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낮은 등의 문제가 나타나, 요구가 높은 서비스에 대한 지원방안 개선이 필요함.

1

배경 및 문제점

- 미혼모 중 입양을 하기보다는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양육미혼모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임신, 원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저소득층 지원 및 한부모 지원을 통해 미혼모·부의 양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부모 가정과는 다르게 미혼모 가정이 겪는, 임신 출산기, 영아 양육기에 대한 지원

* 본 원고는 「김지현·권미경·최윤경(2018).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Ⅳ):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이 필요함.

- 본고에서는 재가 양육 미혼모의 양육의 어려움을 돌봄 영역, 취업 및 자립 영역, 임신 기 의료시설 이용, 비양육부모 양육 책임 영역 등으로 나누어, 미혼모 가정의 양육실태 및 양육의 어려움을 논하고자 함.
- 이에,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V):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¹⁾’을 통해 살펴본 300가구의 미혼모 양육 실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재가 양육 미혼모 가정에 있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제언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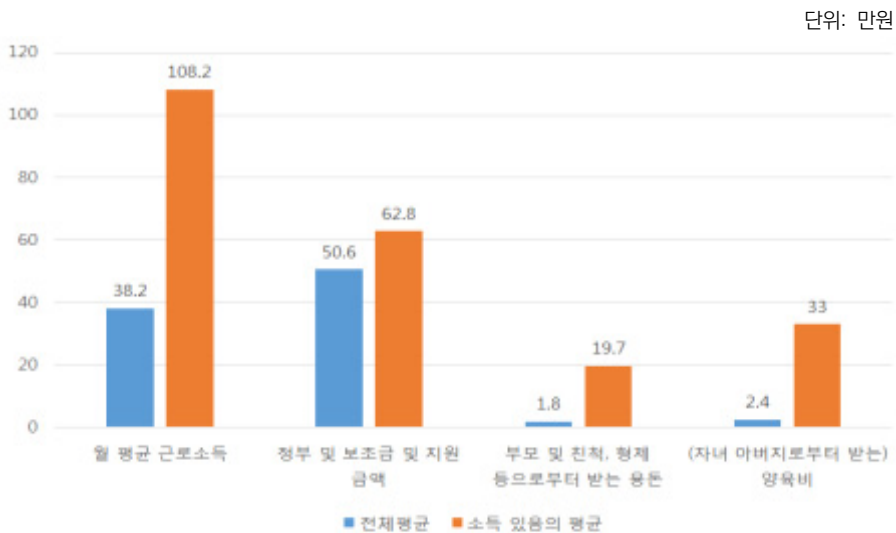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시설에서 양육하는 가구는 제외하고 재가에서 혼자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가정 300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연구내용으로는 재가 미혼모 가정의 돌봄, 자립,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등에 대한 양육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또한 정부지원에 대한 지원 경험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어떤 지원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지, 자녀 연령별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요구가 높은지 등을 파악하였음.
- 미혼모 가정 양육 실태 및 지원 경험과 요구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재가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의 개선 방향을 모색함.

3 재가 양육 미혼모 지원영역별 양육 실태 분석

가. 경제적 상황

- 본 연구 조사 결과, 응답자의 소득수준은 낮게 나타났음.
 - ◆ 300명의 미혼모 중 소득이 있는 경우는 35.3%에 지나지 않았으며, 소득이 있는 가구의 평균 소득은 108.2만원이었음.
 - ◆ 반면, 정부 및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가 80.7%에 달하였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평균은 62.8만원이었음. 비양육 부모(본 조사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7.3%였음.



[그림 1] 월평균 소득 (소득 영역별)

- 월평균 지출을 알아본 결과, 107.6만원의 평균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그 중 주거비 28.5만원, 교통/통신비 10.9만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는 67.0% 정도였고,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의 평균 지출비용은 17.4만원으로 나타났음.

- ◆ 저축·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71.0% 정도였으며, 저축·보험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가구의 평균 비용은 2.4만원으로 나타났다.
- 채무 여부로 채무가 있다고 한 경우는 전체 300명 중 66.3% 정도였는데, 채무의 이유로는 생활비가 55.3%를 차지하였고, 보증금이 17.1% 순으로 가장 높은 비용을 차지하였음.
- ◆ 전체 가구의 50% 이상이 생활비로 인한 빚을 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기초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짐.

〈표 1〉 채무 여부 및 이유

단위: %(명)

구분	채무 있음 (N=300)	생활비	보증금	의료비	보육/ 교육비	기타	계(수)
전체	66.3	55.3	17.1	5.0	1.0	21.6	100.0 (199)
자녀구분							
영아	61.9	53.1	14.6	2.1	0.0	30.2	100.0 (96)
유아	67.6	58.3	12.5	10.4	0.0	18.8	100.0 (48)
초등학생	74.3	56.4	25.5	5.5	3.6	9.1	100.0 (55)
$\chi^2(df)$		20.513(8)**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42.6	75.0	5.0	0.0	0.0	20.0	100.0 (20)
만 25~29세	73.1	42.1	22.8	1.8	0.0	33.3	100.0 (57)
만 30~39세	68.5	59.6	15.7	2.2	2.2	20.2	100.0 (89)
만 40세 이상	73.3	54.5	18.2	21.2	0.0	6.1	100.0 (33)
$\chi^2(df)$		37.099(12)***					

* $p < .05$, ** $p < .01$, *** $p < .001$.

나. 돌봄 및 양육

- 조사 응답자 중 300명 중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226명으로 나타났는데, 돌봄의 종류를 물었을 때, 복수응답 기준으로 엄마가 직접 돌보는 경우가 91.6%, 기관 이용이 41.2%로 많은 경우 엄마가 직접 돌보고 있었음.
- ◆ 특히 영아자녀를 둔 경우, 기관에 보내지 않고,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 ◆ 영유아 대상 돌봄 서비스 중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인지도가 90% 이상으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음에도 이용 중인 가정은 17.1%에 지나지 않았고, 미이용자의 이용의향은 64%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서비스를 이용해본 응답자의 만족도도 3.9점으로 높게 나타나, 보다 많은 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 어린이집 휴일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등도 이용만족도가 3.9점으로 높아 주목할 만함. 특히, 주말 휴일보육은 만족도는 높으나 인지도가 46.0%에 지나지 않아, 평일과 주말 혼자서 자녀를 책임져야 할 미혼모 가정에게 다양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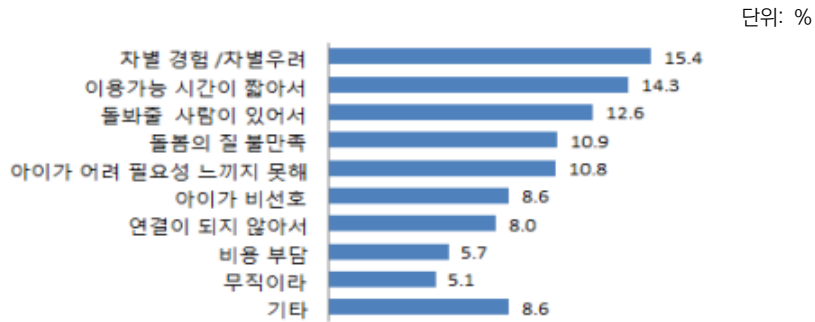
〈표 2〉 영유아 대상 서비스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의향, 만족도

단위: %(명)/%, 점, (명)

구분	인지 여부 (N=226)		이용 여부 (인지자 응답)		이용 의향 (미이용자 응답)		이용 만족도			
	알고 있음	(수)	이용함	(수)	있음	(수)	불만족	만족	평균	(수)
1) 시간제보육	86.7	(196)	27.6	(54)	60.6	(87)	13.0	59.3	3.7	(54)
2)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	80.5	(182)	30.8	(56)	64.3	(81)	8.9	62.5	3.9	(56)
3) 어린이집 24시간 보육	59.7	(135)	3.7	(5)	24.6	(32)	40.0	40.0	3.0	(5)
4) 어린이집 휴일보육	46.0	(104)	11.5	(12)	44.6	(41)	16.7	66.7	3.9	(12)
5) 유치원 방과후 과정	45.1	(102)	20.6	(21)	61.7	(50)	4.8	47.6	3.7	(21)
6) 아이돌봄 서비스	93.4	(211)	17.1	(36)	64.0	(112)	11.1	75.0	3.9	(36)
7) 공동육아나눔터	34.1	(77)	9.1	(7)	47.1	(33)	28.6	14.3	2.6	(7)

주: '불만족'은 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만족'은 매우 만족+대체로 만족'을 뜻함.

- ◆ 아이돌봄 서비스를 미이용 하는 사유 중 15.4%가 차별경험 및 차별 우려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비선호(8.6%), 연결 안 됨(8.0%) 등의 순으로 미이용 사유를 응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에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냈음.



[그림 2] (미취학 자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사유

-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영유아 자녀의 경우 보다 어머니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 경우 혼자 귀가하거나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높음.
 - ◆ 초등학생 자녀가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혀 없다’는 경우가 27%, 1년에 1-2회가 13.5%로 40.5%가 혼자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이는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383)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혼자 있는 시간 거의 없다’의 비율이 6-8세 74.7%, 9-11세 54.1%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나, 미혼모의 자녀가 혼자 있었던 경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 (초등학생 자녀) 자녀가 집에 혼자 있었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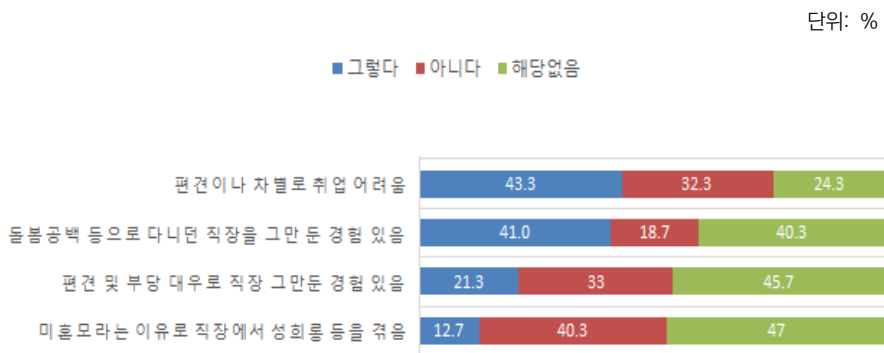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없다	1년에 1-2회	1년에 4-5회	한 달에 1-2회	한 달에 3-4회	주 2회-4회	주 5일 이상	계(수)
전체	27.0	13.5	6.8	14.9	9.5	21.6	6.8	100.0 (74)
가구 구성								
본인+자녀	25.4	10.2	6.8	16.9	10.2	23.7	6.8	100.0 (59)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33.3	26.7	6.7	6.7	6.7	13.3	6.7	100.0 (15)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21.4	7.1	3.6	14.3	3.6	32.1	17.9	100.0 (28)
구직중	34.8	13.0	13.0	17.4	8.7	13.0	0.0	100.0 (23)
학업중	11.1	22.2	11.1	11.1	22.2	22.2	0.0	100.0 (9)
전업주부	35.7	21.4	0.0	14.3	14.3	14.3	0.0	100.0 (14)

- ◆ 초등자녀가 성인의 보호 없이 혼자 있었던 경우, 1회에 혼자 있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음.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20.5%, 5시간 이상도 13.6%로 나타남.

다. 취업 및 자립

- 본 연구에서 경제활동 관련 경험을 물어본 결과,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취업이 어렵다고 답한 경우가 43.3%, 돌봄공백 등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1.0%로 나타나 취업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 미혼모로서의 경제활동 경험

- 구직 시 어려운 점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나오듯 아이 돌봄 때문에 취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시간선택에 제한이 있어, 취업장소를 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음.
- ◆ 또한 취업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취업전에는 자녀를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 돌봄으로 인해 취업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24.3%나 나타났음.



[그림 4] 구직 활동 시 어려운 점

- 직업훈련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취업교육 동안 자녀돌봄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7.3%였고, 26.8%는 취업교육 후 취업이 우려된다고 응답하였음.
- ◆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취업준비 지원이 필요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양육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표 4〉 직업훈련 시 겪는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취업교육 동안 자녀돌봄	취업교육 후 취업 우려	적합한 프로그램 없음	체력소모 및 건강문제	직업훈련비 용부담	미혼모에 대한 편견	기타	계(수)
전체	37.3	26.8	13.7	9.2	7.2	2.0	3.9	100.0 (153)

라. 임신기 의료시설 이용 및 산후조리

- 미혼모 가정의 태아 검진을 위한 의료시설 첫 방문 시기를 조사함.
- ◆ 임신 9주 이전(46.3%), 임신 9~13주(20.3%)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 연령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 출산 때까지 병원을 가지 않은 경우도 3.7%로 나타나, 미혼모 임신시 임신기에 쉽게 상담을 받거나,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

〈표 5〉 태아 검진을 위한 의료시설 첫 방문 시기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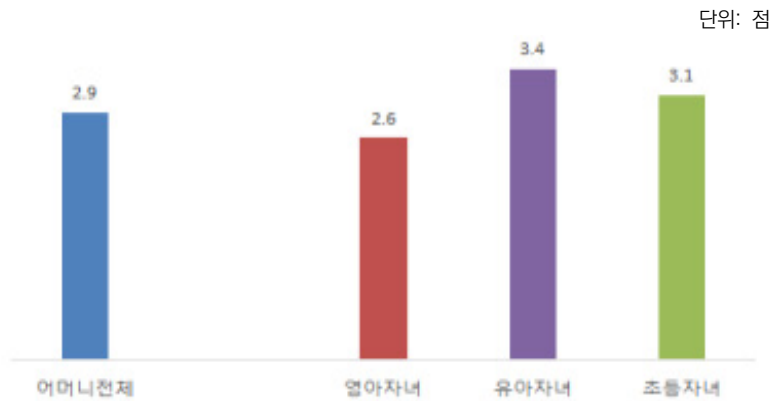
구분	임신 9주이전	임신 9~13주	임신 14~24주	임신 25~33주	임신 34주 이후	출산까지 가지 않음	계(수)
전체	46.3	20.3	14.0	13.3	2.3	3.7	100.0 (300)
임신 시 연령							
만 18세 이하	25.0	25.0	15.0	35.0	0.0	0.0	100.0 (20)
만 19~24세	43.0	19.8	11.6	15.1	3.5	7.0	100.0 (86)
만 25~29세	49.4	19.1	16.9	10.1	1.1	3.4	100.0 (89)
만 30세 이상	50.5	21.0	13.3	10.5	2.9	1.9	100.0 (105)
$\chi^2(df)$	18.403(15)						

■ 임신 14주 이후에 처음 병원을 찾았다고 응답한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의료시설에 늦게 가거나 찾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병원비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34.0%, ‘출산여부를 결정하지 못해서’가 16.0%, ‘병원에 가기가 두려워서’가 14.0%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음.

- ◆ 임신·출산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운맘 카드에 대한 홍보와 함께, 미혼모의 상황에서도 병원을 어려움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주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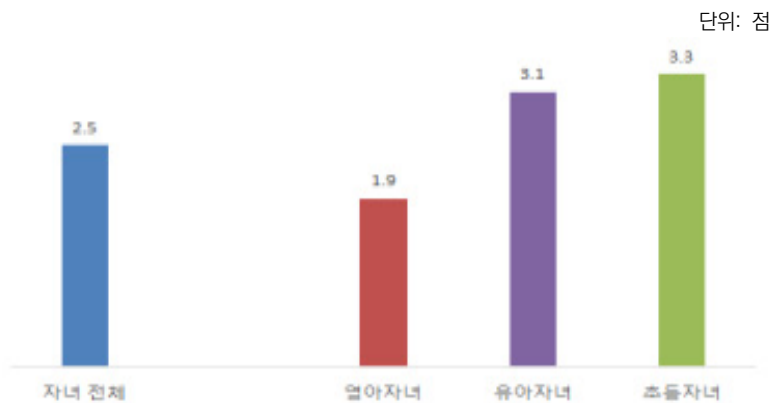
마. 비양육 부모 관련 문제

- 자녀의 비양육 부모의 부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자녀가 비양육부모를 찾은 적이 있는 136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그 시기는 평균 만 3.8세로 유아기에 비양육 부모에 대한 관심 및 이에 대한 대화가 필요한 시기로 파악됨.
- 자녀에게 비양육 부모인 자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 어머니 본인이 현재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지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유아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림 5] 아버지 부재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

- ◆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현재 스트레스 및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생의 경우 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6] 아버지 부재에 대한 자녀의 스트레스 정도

- ◆ 자녀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원인이 어디서 기인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교나 기관의 친구들과 인해서'라는 응답이 56.1%로 가장 많았고, '보육기관이나 학교 선생님이'라는 경우가 32.9%, '아이 친구들의 부모'라는 경우가 31.7%, '조부모 등 친척이라는 경우'가 20.7%로 나타남.

〈표 6〉 자녀가 겪는 스트레스 및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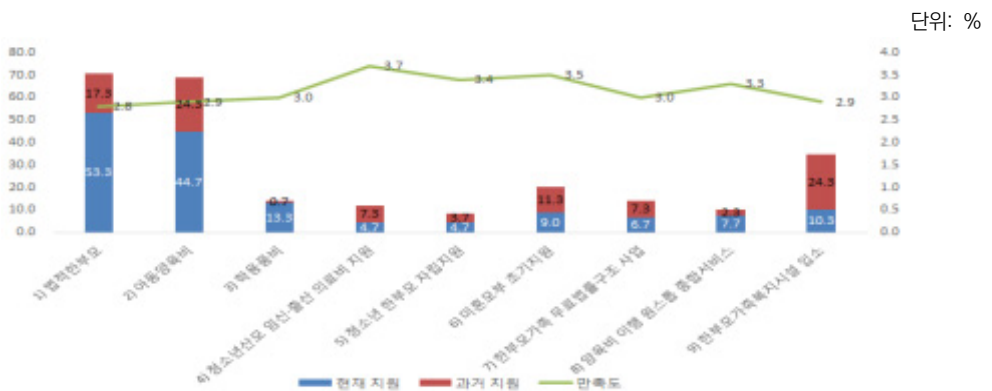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학교나 기관의 친구들	보육/교육 기관이나 학교 선생님	아이 친구들의 부모	조부모 등 친척들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	기타	(수)
전체	56.1	32.9	31.7	20.7	8.5	18.3	(82)
자녀 연령							
영아	15.4	53.8	38.5	7.7	15.4	23.1	(13)
유아	63.6	24.2	33.3	21.2	6.1	21.2	(33)
초등학생	63.9	33.3	27.8	25.0	8.3	13.9	(36)

4 현재 미혼모 지원에 대한 평가 및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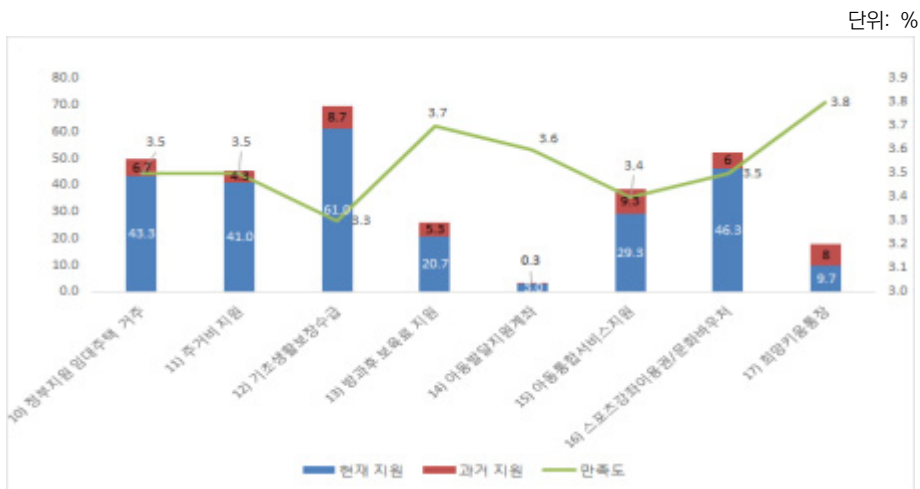
가. 정부지원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미혼모 가구 조사결과, 저소득 한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혜택 중 법적인부모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가 53.3%이고,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44.7%임.
- ◆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미혼모·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미혼모·부 초기지원은 현재 지원받고 있는 가구가 9.0%(기경험 11.3%)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3.5점의 만족도를 보여 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그림 71] 한부모 대상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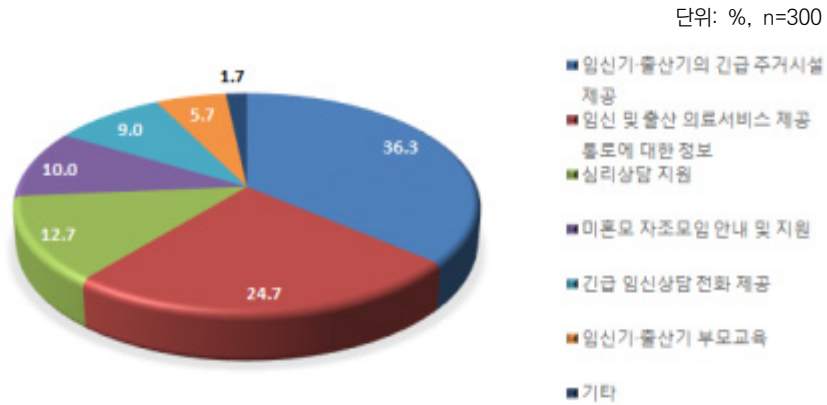
-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지원하는 혜택 중에는 정부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61.0%로 과반수 이상임을 알 수 있으며, 정부지원 임대주택 거주, 주거비 지원 등도 각각 43.3%, 41.0%로 꽤 높은 비율을 나타냄.
- ◆ 스포츠강좌이용권/문화 바우처 제공(46.3% 이용 중) 및 방과후 보육료 지원(20.7% 이용 중) 등 아동의 수업 외 여가 및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 3.5점, 3.7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그림 8] 저소득층 대상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

나. 미혼모 가정의 임신·출산기, 양육기별 정책 요구

- 임신·출산기 지원을 위해 보완되어야 하는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서비스로 응답자의 36.3%가 '임신·출산기의 긴급주거시설 제공 필요'를 선택함.
 - ◆ 또한 '임신 및 출산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4.7%, '심리 상담 지원'이 12.7%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자녀 양육기 지원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지원 서비스로는 '자녀 돌봄 기관 지원 시 우선권 부여'가 28.0%로 그 다음으로 '긴급 돌봄 체계 마련', '다양한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이 16.7%, 12.3%로 그 뒤를 이었음.



[그림 9] 임신기·출산기 지원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지원 서비스

- ◆ 자녀돌봄 기관 지원 시 우선권 부여는 초등학생 자녀를 포함한 모든 연령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 수업 이후 초등돌봄교실 등의 방과 후 돌봄지원 시 우선권 부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 또한 영아 자녀의 경우 '다양한 취업교육 및 취업정보'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유아 부모는 '긴급돌봄 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초등자녀를 둔 경우는 '가사노동 지원' 및 '무료식사 제공' 등의 요구가 높아 자녀 연령별로 요구되는 서비스가 다름.

<표 7> 양육기 지원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지원 서비스

단위: %(명)

구분	돌봄 기관 우선 순위	긴급 돌봄 체계 마련	다양한 취업 정보	야간 보육 활성화	법률 상담 및 지원	가사 노동 지원	아이 돌보미 확충	부모 교육	무료 식사 제공	기타	계(수)
1순위	28.0	16.7	12.3	9.7	9.3	8.0	7.3	4.7	3.0	1.0	100.0 (300)
자녀구분											
영아	27.7	17.4	11.0	9.0	11.0	7.7	8.4	5.2	2.6	0.0	100.0 (155)
유아	25.4	21.1	14.1	8.5	7.0	12.7	4.2	2.8	0.0	4.2	100.0 (71)
초등학생	31.1	10.8	13.5	12.2	8.1	4.1	8.1	5.4	6.8	0.0	100.0 (74)
$\chi^2(df)$					25.652(18)						

5

재가 양육 미혼모·부 정책 개선 방안

가. 재가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돌봄 우선순위 마련

- 미혼모 가정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자녀 연령, 모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가장 시급한 어려움은 돌봄 부재로 나타남.
 - ◆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경우, 인지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서비스이나, 차별 우려, 오랜 대기 등으로 필요한 가정에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음.
 - ◆ 또한, 저소득층 비용지원은 되고 있으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가산점만 있을 뿐, 우선적 배정은 제공되고 있지 않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이돌보미 배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 2019년 예산에서 한부모 시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4,419백만원²⁾이 배정되었으나, 전체 한부모 시설에 있는 아이들 수가 2,000명 정도³⁾에 지나지 않는 점을 보았을 때, 시설뿐만 아니라 재가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 가정에 대한 돌봄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초등돌봄 신청에서도 우선순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
 - ◆ 미혼모 가정을 비롯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모의 취업활동이 필수적이거나, 초등학교 및 돌봄기관의 이용에서 돌봄배정 우선순위가 맞벌이 부부, 다자녀 부부 등을 포함한 기타 가산점 합산으로 이루어지거나, 단순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곳도 있어, 한부모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에 대한 시급성을 인식하고,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취업 및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도 돌봄 지원이 필수적임.
 - ◆ 취업 교육 및 취업 준비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취업교육 자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나, 취업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자녀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7조(가족지원서비스), 아이돌봄지원법 제 13조의 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에 근거

3)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주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전체시설현황보기.

http://www.mogef.go.kr/cs/opf/cs_opf_s003.do?mid=old920, 2018. 6. 6. 인출.

- ◆ 취업교육을 받는 경우 중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긴급아이돌봄서비스 마련 및 자녀돌봄으로 인한 결석제, 조퇴제 인정 등 실질적으로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현실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나. 미혼모 가정의 임신·출산기 지원 강화

- 본 연구의 결과 응답자의 20% 이상이 임신 15주 이후 늦게 병원을 방문하였고, 그 주된 이유가 '병원비가 없어서'로 나타났다.
- ◆ 현재 청소년 임신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120만원⁴⁾, 그 외의 임신부의 경우에는 전 국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로 60만원의 임신·출산기 지원을 받음. 하지만 이 비용으로는 임신·출산기의 의료비를 다 충당하지 못하여, 꼭 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거나, 병원방문을 늦추는 경우가 있어, 미혼모 가정에 대한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함.
- 미혼모 가정이 임신초기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으로는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이 있고, 이 사업 역시 만족도는 높으나, 이용률이 높지 않아 예산 마련이 시급함.
 - ◆ 전국에 17개의 거점센터만이 존재하고, 거점센터마다 1명의 인력만 배정되어 임금상승이 어려운 임금구조를 하고 있어, 담당자 인력수급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 이에 미혼모 가족의 초기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충하고, 미혼모·부 초기지원 거점기관의 불균형적 분포를 개선하여,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미혼모·부 가정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급작스러운 임신 상황에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보를 의논할 수 있는 상담창구의 개설이 필요함.
 - ◆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12.0%가 임신초기에 필요한 지원으로 '심리상담 지원'이라고 응답하여, 예상하지 못한 임신 발생시, 상황에 맞게 필요한 지원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확한 상담전화 신설 추진이 필요함.

4)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999&wellInfSno=58&pageGb=1&domainName=&firstIndex=1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2019. 5. 27. 인출.

다.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서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나, 미혼모 가족이 느끼는 사회적 편견은 여전함.
 - ◆ 미혼모 가정의 자녀가 비양육 부모의 부재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이며, 그 이유가 학교 친구들과 친구들의 부모, 학교 선생님 등으로 부터 인한 것으로 나타남.
 - ◆ 미혼모가 느끼는 차별 접점은 병원, 주민센터, 자녀의 기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병원·주민센터 종사자 대상 반편견 교육, 학교 및 미취학 아동 교육기관 부모 대상 부모교육에서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함.
- 미혼모·부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도 동원되어야 할 것임.
 - ◆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내용에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부는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부모라는 점과 함께 비양육 부모에 대한 책임감 결여에 대한 지적이 필요함.
 - ◆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긴급 임신 및 임신 초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대한 창구를 마련하고, 인식개선 캠페인에서 미혼모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제공 창구에 대한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참고 문헌 |

김지현·권미경·최윤경(2018).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V):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 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999&welInfSno=58&pageGb=1&domainName=&firstIndex=1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2019. 5. 27. 인출.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주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전체시설현황보기.

http://www.mogef.go.kr/cs/opf/cs_opf_s003.do?mid=old920, 2018. 6. 6. 인출.

<참고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